

서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추진
3기 신도시 내년 말 조기 분양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급 목표
공공개발	2만 가구
기존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8000가구
준공업지역	7000가구
인용 주거공급	8000가구
도심 내 유희부지	1만5000가구
총 7만 가구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쏟아내던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및 유희지 개발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에 뺨치를 박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개발 사업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 △도심 내 유희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희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공급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8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조합원

에게 부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와 SH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m→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에도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 속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 대책에 기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자녀에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대국민 사과... "국민께 실망·심려 끼쳐... 모두 제 잘못"

"더이상 '무노조 경영' 없어...국력에 맞는 새 삼성 만들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세 차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관련기사 9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리기도 했다'며 "이는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도 부족함 있었고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며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로 재판에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감시에 대해선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최근 2-3개월 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진정한 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3월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사과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도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K방역' 발판 외투기업과 협업 가속도

성윤모 장관, 외투기업 간담회
기업인들 "모든 역량 투입" 화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K-방역모델'을 세계에 알리며 '안전한 대한민국(Safe Korea)'의 위상을 세운 한국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업 가속화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 주한상의 대표와 주요 외국계 기업인과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한 외투기업을 격려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자리였다.

성 장관은 우선 "마스크용 필터 소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설비 전환에 신속히 협조해준 한국도레이 등 외국인 투자기

업을 높이 평가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잠재력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는 △역량 있는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창의적 방역 조치 등 민관의 하나된 힘을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했고 △위기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인적·물적 교류 추진, 기업업무 지속계획서(BCP) 배포, 출입국 불편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등 기업활동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기간산업 지원 등 신속·과감한 경제회복 조치를 단행한 것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 기업 대표들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회복 과정에서 외투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현대차, 4월 해외판매 70% 급감

완성차 5사 판매 '반토막'
美·유럽 등 '셋다운'에 발목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국내 및 해외 판매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48.3%나 감소했다.

신차 효과를 앞세워 국내 판매가 6.4%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인도 등 주요 시장의 '셋다운' 여파가 이어지면서 해외 판매는 62.6% 넘게 폭감해 '내화외빈(內華外貧)'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완성차 업계가 밝힌 4월 판매 실적에 따르면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34만1944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슈퍼 신차 사일'에 접어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국내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누렸고,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 소형 SUV 신차가 국내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내수에서 선방한 이들 모두 해외시장에선 부진했다. 신차가 없었던 쌍용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는 지난해 동기보다 57% 감소했다. 내수는 7만1042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출을 포함한 해외 판매는 수요 위축과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의 가동 중단 충격으로 8만8037대에 머물러 전년 대비 무려 70.4%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총 판매는 57% 감소한 15만9079대에 그쳤다.

국내 판매는 △그랜저(1만5000대) △아반떼(8249대) △쏘나타(5385대) 등이 신차 효과를 앞세워 선방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 G80(4416대)과 GV80(4324대) 등 신차가 힘을 보탤었다.

기아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시장에서 K5와 셀토스, 쏠렌토 등이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전년 대비 20% 가까이 판매가 늘었다. 기아차의 지난달 국내 판매는 5만361대에 달했다. ▶9면에 계속 김준형 기자 junior@

“성장사다리법 만들어 중견기업 정책 사각지대 해소”

미래한국당 한무경

“중견기업이 경제의 허리와 다름없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다.” 한무경(6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당선인은 당선 포부로 ‘성장사다리법(가칭) 입법’을 제시했고, 이를 내놓은 배경으로 ‘피터팬 증후군’을 꼽았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내놓는 경제 정책만 봐도 중견기업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기간산업 지원의 수혜를 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맞춤형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견기업은 예외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견기업은 대기업만큼 현금 보유도 없어 생산을 줄이는 형편”이라며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가동률이 50%가량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이유도 이처럼 정책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성장사다리법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중견기업은 그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정의는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0조 원 사이다.

그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R&D 등 지원도 중소기업 못지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생태계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20년 넘게 중소기업계 현장을 뛰어다니며 앞장서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시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다. 그는 부도난 쌍용차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1억 원에 인수해 창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당시 그가 인수한 사업체는 현재 연매출 8000억 원대의 자동차부품 전문 그룹사 효림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는 회사 인수 뒤 직원들과 첫 상견례 자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여중, 여고, 여대, 문헌정보학 석박사 과정마저 여대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소기업 → 중기 → 중견 → 대기업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 심사위원 남성 쏠림현상 등
사회 전반 만연한 性 차별 해소
女경제인 기 살리는 정치인 될 것



역력 대구가톨릭대학 도서관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박사
/ 前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現 효림산업 대표이사

대학원을 나왔기에 그를 향한 직원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는 “농담을 꺼내도 돌아오는 반응이 없었다”며 “비전공자에 경험도 없는 여성 대표가 마주한 현실”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술선수법을 실천하고자 남녀 직원 화장실을 직접 청소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부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성장사다리법’ 입법을 약속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품업은 산업 특성상 절삭기기를 종일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더러운 신발에 화장실도 곧잘 지저분해졌다.

한 당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은 남자 직원들은 밖에서 노상 방뇨를 하곤 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지니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며 “꼬박 10년 넘게 화장실 청소는 내 몫이었다”고 부연했다.

20년 넘게 기업인으로 산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본격적인 모드 전환에 나섰다. 생을 마칠 때까지 ‘기업인’으로서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미래한국당의 영입 제안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평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던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당선인은 “당의 참패에 당선 뒤 웃을 수 없었다”며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필요한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과 달리 정치는 근심거리를 버리지 못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는 “기업 경영은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를 쳐나가며 버리면 방향성이 나온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은 모든 걱정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한 당선인은 여성 경제인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여성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에서 심사위원 성별이 남성이 치우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창업 경진대회 심사위원만 봐도 성별이 남성에 치우쳐 있다”며 “여성 관점에서 나오는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한 편견도 앞장서서 깰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 당선인은 1998년 처음 사업에 뛰어 들었을 당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남편 직업이 뭐냐”며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물론 그때보다 여성 기업에 관한 인식이 좋아졌지만, 마냥 과거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특히 기술 창업 분야에서 여자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당선인은 4년 뒤 ‘여성 경제인의 기 살리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에 대거 국회로 진출한 여야 중소기업계 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출신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법지원협의회(가칭) 구성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회의원 중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데 이견이 있겠느냐”면서 “여야를 떠나 윈윈(win-win)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부모님께



선생님께



부부사이에도



고맙다 마그비!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액상형으로 흡수가 빠른, 마그네슘 제제

마그비스피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 함유 (마그네슘으로서 150mg)



마그비
연질캡슐도
있습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31-002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신규주택 필요물량>

상한제·용적률 완화... 수요보다 많은 '25만호+α' 공급

열어붙은 시장에 '공급폭탄'

정부가 고강도 규제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급물량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간 22만 호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많은 연 25만 호를 공급해 집값 안정 기조에 쉼표를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한복판에 있는 용산역 정비장을 개발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하기로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다잡기 위해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기간 단축·역세권 확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인센티브 LH·SH, 장기 정체 사업 등에 투입 공장이전 부지 등 유휴공간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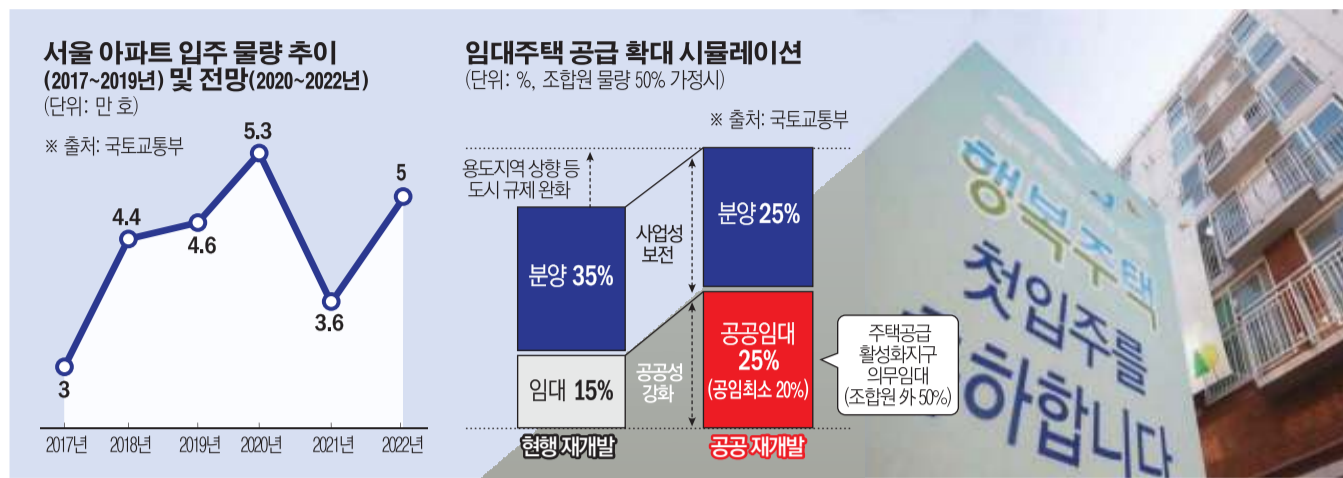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호를 공급한다. 조합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기로 했다.

조합원 회담 시에는 LH와 SH가 분담금을 대납한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은 분담금의 60%에서 40%로 하향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공적임대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서도 1만5000호를 공급한다. 민간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는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에 들



어간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LH·SH가 합동 공모해 1~2개 시범 사업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은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다. 확보 방식은 △국·공유지 활용 △크레일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등 4가지다. 특히 코레일의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정비장은 복합개발을 통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휴부지 대부분 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장은 2021년 말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 규모다. 정부는 이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연간 11만 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

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분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호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 호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주택 공급 시그널로 집값 안정 견인" "수요 분산 유인책 없어 투기 재점화"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 강화 방안은 서울·수도권에 앞으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없어 '앙고 빠진 진땀'이라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할 유인책이 없어 집값 안정에 일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인구 구조나 가구수 변화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제안한 25만 가구가 안정적인 공급량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서울 중구정사 부지(500가구)와 동작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영등포 해군복지단지(110가구) 등 찌투리 땅을 활용하는 점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공급 강화 방안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알맹이 없는 공급 방안이라는 얘기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선 이미 준공업지역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온 규제들을 풀지 않아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핵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할 유인 대책이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각종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서울 주택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역시 도시와공간대표는 "용산역 정비장을 8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곳곳 쓸 만한 땅을 발굴해 내면 결국 주택 수요의 서울 집중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고 싶은
진심으로 꼭 채웠습니다

경제활동기부터 은퇴 후 노후생활까지
사망보장과 생활자금을 균형적으로 보장설계 가능

14대 보장사유 발생시 납입면제
* (무)14대 보장사유 발생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입시

Shinhan One Life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이러를 함께 하는 여전한 보험 Shinhan생명

공공시설 속속 개장... 마스크 착용·인원 제한 의무화

출근길 거리두기 난항... 대면 강의 대학 특별검사소 운영 당국, 축제·체육대회 취소 권고... 생활방역 법제화 검토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생활방역 첫날 조심스럽게 개장을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은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지역축제나 학교 체육대회 등은 당분간 취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생활방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출근길에서는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출근 중단’ 등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만 곳에 운영 자체 권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후 확진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도 체육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등이 개장을 시작했다.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을 의무화했고, 관람 인원도 제한하

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대학들은 대면 강의도 시작했다. 각 학교는 실험과 실습실을 중심으로 현장 강의 일정을 시작했다. 역시 학교 내에 특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학생 신원과 발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일부 시설들은 타 지역의 추이를 지켜본 뒤 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다. 특히 관광객이 몰렸던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200여 개 공공시설 개장을 늦출 예정이다.

다만 출근길은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상당수 회사가 재택근무를 끝내고 출근을 시작하면서 대중교통은 크게 붐볐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둘 것을 권고했지만 뻘뻘한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아예 벗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고, 짧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부가 맞닿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대응차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6일,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이 다시 문을 열었다. 사진은 한옥 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ijak@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재 권고 수준인 핵심 수칙을 법제화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23일 △방역담당 부서(관리자) 지정 △1~2미터 거리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즉시 퇴근 조치 △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사업장·회의 지침을 배포했고,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수칙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문화·레저 소비 급감에 온라인쇼핑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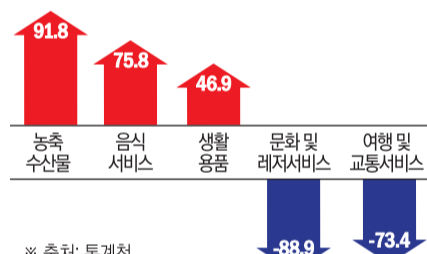
거래액 전년비 11.8% 늘었지만 증가율은 6년 2개월 만에 ‘최저’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이 현재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레저서비스 등 거래가 급감한 탓이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조 5825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8% (1조3233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1.8%는 2014년 1월(11.0%) 이후 최저치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수치상으론 2014년 1월 이후 최저가 맞지만, 2017년부터 표본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2017년 이후 최저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

온라인쇼핑 상품군별 증감률 (단위: %)



동이 위축되면서 식품(66.1%), 생활(49.0%) 등에서 늘었으나 서비스는 20.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음식서비스(75.8%), 음·식료품(59.4%), 생활용품(46.9%)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문화·레저서비스(-88.9%), 여행·교통서비스(-49.7%)는 급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 거래액이 줄면서 전반적인 거래액 증가율도 둔화했다”고 말했다. 3월 기준으로 서비스 거래액(2조451억 원)은 전체 거래액의 16.3%를 차지한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도 총거래액은 8조4673억 원으로 19.2% 늘었으나, 상

품군별로 서비스는 8.1% 감소했다. 문화·레저서비스와 여행·교통서비스가 각각 87.2%, 68.6% 급감하고, 외부활동 증감에 민감한 화장품과 패션용품·액세서리도 각각 26.3%, 11.1% 줄었다.

한편,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는 1조4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조3219억 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475억 원), 미국(385억 원) 순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일본(-39.4%), 미국(-5.9%) 등에서 감소했으나, 중국에서 25.2% 급증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이 1조2627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직접구매는 9793억 원으로 8.1% 늘었다. 국가별로 미국(4842억 원), 유럽연합(EU, 2646억 원), 중국(1415억 원)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이 37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청년 고용 충격, IMF 세대보다 커”

KDI, 올 고용률 1%P 하락 예상 IT 등 유망분야 교육훈련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청년층(15-29세)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률 수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청년층 내 인구비중 변화를 고려할 경우 2019년 3분기까지도 고용 부진이 계속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15-19세 고용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대 인구가 줄거나 20대 인구가 늘면 청년층 고용률은 상승한다. 2018년의 경우 15-19세 고용률은 7.4%로 25-29세(70.2%)의 약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 고용 상황은 2016년 말부터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주된 배경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제조업 회복으로 인구비중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은 내렸으나,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고용 여건은 더 안 좋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2월과 3월 청년층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1월보다 각각 0.9%포인트(P), 2.6%P 하락했다. 인구고정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1.0%P, 3.0%P 내렸다. 향후에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청

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취업이 지연됨에 따라 미취업 기간 중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취업 후에는 기간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데 따른 임금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특히 첫 직장이 시간제나 비정규직일 경우, 향후 경력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취업한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이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신규 채용 인력에 밀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세대나 글로벌 금융위기 세대 정도, 내지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KDI는 청년층이 고통받은 인구를 부양할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신규 채용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정보기술(IT) 등 유망 분야 교육훈련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한 연구위원은 “4차 산업 개혁과도 맞물려서 대학 전공 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초·중등 교육에서 진로 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정책들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눈비 올 때 터널 제한속도 표시... 스쿨존·주거지는 15km

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 추진

6월부터 비나 눈이 올 경우 터널 제한속도가 표시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과 주거지에는 제한속도를 15km/h로 낮추고 결빙위험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0-2023년)’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상주·영천 다중추돌 및 순천·완주 사매 2터널 차량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고 대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

통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함에도 선제적 대응 및 개선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중 인프라 부분의 세부 실천계획(5개 분야 64개 세부과제)으로 인프라 개선·확충 물량 및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EU) 본엘프(우리집 앞마당)처럼 스쿨존·주거지 중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15km/h 낮추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STOP사인’, ‘PM 통행공간’(가칭 공유도로)도 도입한다.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해 스쿨존 전용 과속방지턱 규격도 새로 마련한다. 국토

부는 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외에 과속단속 카메라, 속도표지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결빙위험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도 확충한다. 또 적재불량이나 디지털은행기록계(DTG) 미장착 차량, 과적 등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낡아 못 쓰게 된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21-2025년) 도로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CCTV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터널 진입 시 비나 눈이 올 경우 20~50% 감속토록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속도를 표시해 주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여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승패는 초선에 달렸다

민주,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상임위에 초선 우선 배정 고려
통합, 주호영·권영세 '2파전'
초선 의견 경선물에 반영키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김태년(왼쪽부터), 전해철, 정성호 후보가 밝게 웃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운영을 주도할 새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7일, 통합당은 8일 실시한다. 민주당은 경선일 하루 전인 6일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통합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두 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먼저 상임위 '새판짜기'에 몰두할 것이라 관측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통합당 몫이었지만, 의석수를 180석으로 늘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원칙대로 이들 상임위를 가져갈 것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당은 반드시 법사위를 받아내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새 지도부는 초반부터 리더십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한 초대 공수처장 인선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계가 무거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소임하기 위한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후보자들은 '초선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

(68명)를 차지하는 초선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약실천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전 의원 역시 "초선 당선자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배정

하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정책 실현과 제도적 개선을 대표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초선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야 한다. 각자 의원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대구 수성갑에서 여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을 누르고 5선을 달성한 주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수도권에선 4선 권영세 의원이 나서 양자 구도가 됐다. 충청권에서 출마 의사를 나타냈던 이명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찾지 못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통합당 역시 당선인 중 초선이 48%를 차지해 경선에 키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5시간가량 '마라톤 토론'을 거쳐 후보를 검증할 예정이다. 박성중 선거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당선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을 경선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주 52시간제·중부세 개정 등 법안 1만5000건 폐기 '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8일 열린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 건의 법안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한 20대 국회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남아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임기 안에 본회의를 갖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법적인 임기 만료(5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당선자들에게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현재 계류 법안 수는 의원입법 1만4873건과 정부입법 383건을 포함해 총 1만5256건에 달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 자동으로 함께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63.3%에 달하는 수치다.

임기 말 무더기 법안 폐기는 이전에 도 늘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6301건, 19대 국회에서는 9809건이 각각 폐기됐다.

폐기를 앞둔 법안 중에는 여러 건의 주요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

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숙박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4년간의 임기를 충돌과 대립으로 보내며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075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가 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악' 타이틀을 갖고 있던 19대 국회의 최종실적인 42.8%(발의 1만7822건·처리 7631건·폐기 1만190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국회관계자는 "여야 대립은 격화된 반면 이른 것이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동물국회'라는 이미지만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前 월트디즈니 CEO〉

‘아이거’ 떠난 디즈니 “아이고...”

로버트 아이거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 첫 분기 성적표를 내놓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가 시장을 크게 실망시켰다. 아이거 후임으로 취임한 밥 차펙 최고경영자(CEO)의 어깨가 한 층 무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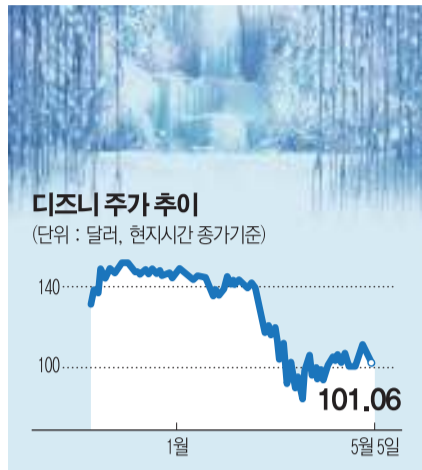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즈니가 이날 발표한 2020회계연도 2분기(올해 1~3월)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1% 늘어난 180억 달러(약 22조 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4억 6000만 달러(주당 26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92%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37% 줄어든 24억 달러였다.

이날 정규 거래에서 2.05% 급락한 디즈니 주가는 실적 쇼크에 시간 외 거래에서 2% 이상 더 빠졌다. 디즈니 주가는 1월 중순 중국 테마파크 폐쇄 이후 지금까지 약 30% 주저앉았다.

NYT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디즈니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 성공으로 촉망을 쏘아 올렸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테마파크와 영화관 폐쇄 등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시기를 보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2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이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부진한 실적

15년 이끈 CEO 퇴임후 첫 실적 광고수익 등 급감하며 어닝쇼크 순익 전년비 92%↓·주가 2.05%↓



을 거뒀다며 3분기에는 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세계 최대 테마파크 월트디즈니월드에는 2분기에 문을 닫은 날이 17일에 불과했지만, 이번 분기는 내내 폐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분기 테마파크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10%, 영업이익은 58% 각각 감소했는데, 이번 분기는 가능 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NYT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디즈니의

테마파크와 유람선 사업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디즈니는 최근 수년간 미디어 산업의 혼란 속에서도 테마파크와 유람선, 블록버스터 영화 덕분에 상승장구했다. 그러나 최전성기를 이끈 이들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부 문을 닫으면서 디즈니는 순식간에 ‘겨울왕국(Frozen)’처럼 꽁꽁 얼어붙은 신세가 됐다.

디즈니는 11일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재개장할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가 관람객을 평소의 4분의 1만 받으라고 요구한 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여기에 불황으로 비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유료 케이블TV 채널 가입을 해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디즈니는 ESPN과 ABC, FX 등의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1~4월에만 미국에서 약 160만 명의 회원이 이탈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4일 기준으로 총 54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캐시카우이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테마파크와 케이블TV, 영화의 성장세가 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나이티드 3400명·버진애틀랜틱 3100명… 美·유럽, 감원·파산 도미노

에어비앤비도 인력 25% 감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인한 기업 파산과 대규모 감원 도미노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감원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대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의 케이트 게보 인적자원부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0월에 3400여 명 감원이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리행정직의 약 30%이며, 7월 중 통보된다.

유나이티드는 직원 1만5000명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근무시간도 줄인 상태다.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도 2만 명에 달한다.

유나이티드항공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인 ‘CARES’ 법에 따라 50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해고를 단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해고 시점이 10월인 것도 CARES 법에서 9월 말까지 비자발적 해고나 임금 삭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유나이티드는 대규모 감원 계획 발표와 뉴욕증시의 전반적인 강세에도 이날 주가가 4.5% 급락해 항공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항공 수요가 예년 수준을 되찾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감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도 이날 3150명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 추가 추이 (단위: 달러, 현지시간 종가기준)



사이 바이스 버진애틀랜틱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36년 전 첫 비행 이후 수많은 폭풍우를 견뎠다”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파괴적이지는 않았다”고 한탄했다.

앞서 영국 브리티시항공도 지난주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1만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 파산과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는 이날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19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너럴일렉트릭(GE) 산하 항공기 엔진 제조 사업부인 GE에이비에이션도 전날 전체 인력의 25%에 달하는 1만3000명을 연내 감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즐겨 입어 유명세를 탄 패션 브랜드 제이크루와 헬스장 프랜차이즈 골드짐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파산보호 절차에 돌입하는 신세가 됐다.

세계적 렌터카체인 허츠도 여행 수요 위축에 풍전등화 신세다. 허츠는 이날 오전 자동차 리스 대금 지불을 연기하기로 은행들과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파산보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허츠는 지난달 미국 내에서 약 1만 명을 감원키로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마스크 공장서도 마스크 안 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있는 하니웰인터내셔널의 개인보호장비 공장을 둘러보던 중 토니 스탈링스(오른쪽) 하니웰 부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제외한 3명은 보안경을 썼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재선을 목표로 경제 정상화에만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일정에 나선 건 3월 28일 해군 병원선 'USNS 컴포트' 호를 배웅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노퍽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확진·사망자 더 생기더라도 경제 재개”

“나라 되찾아야... 코로나 TF팀 해산 논의” 조기 정상화 집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아픈 사람과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약 1개월 만에 외부 일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 원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백악관이 코로나19 감염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의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활동 재개가 핵심이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온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이 참여하는 백악관 태

스크포스(TF) 해산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 재개가 더 많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경제 재개를 하면) 병에 걸린 사람, 중증이 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의 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방문한 하니웰인터내셔널의 개인보호장비 공장 시찰 중에도 그는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장기 휴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말해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방송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경제 활동 중단은 지금까지 내가 내려야 했던 결정 중 가장 큰 것이었다”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고난이 따르더라도 경제를 재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강력한 경제 재개 의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세다. 미국 내 코로나19 발병이 정점을 지났다고는 해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성급한 정상화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존스홉킨스는 6월 1일부터는 미국 내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잘못된 모델”이라고 부정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고기 없는 정육점·패티 없는 버거집 美 ‘육류대란’ 시작됐다

미국 내 육류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는 햄버거 등 일부 메뉴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시작했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 한 명당 고기 구매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공·처리 공장이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이에 따른 육류 생산 및 공급 차질이 유통업계에 이어 패스트푸드 업체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내 웬디스 매장 5곳 중 1곳 정도가 햄버거 등 육류가 들어간 메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스티븐슨은 웬디스 매장 5500곳의 메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인 1043개의 매장에서 현재 육류 메뉴를 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과거 웬디스 버거를 유명하게 만든 1980년대 광고를 게재, 육류 공급 부족에 따라 햄버거 판매마저 제한돼 버린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다. 당시 웬디스는 ‘소고기는 어디에?(where’s the

beef?)’라는 문구를 통해 햄만 큰 뽕소고기 패티는 작은 경쟁사의 햄버거를 공격하는 한편, 자사는 햄버거에 크고 두툼한 소고기 패티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바 있다.

웬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북미 전역의 소고기 공급업체 가동이 문제가 발생, 육류 공급이 부족하다”며 “일시적으로 일부 메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육류 공급이 달리면서 코스트코, 샘스클럽, 크로거, 하이바 등 대형 할인매장과 식품점들은 고객 한 명당 고기 구매량을 잇따라 제한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4일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제품 구매를 1인당 3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육가공 공장을 필수 인프라로 지정해 공장 가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차질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돼지고기 생산 차질에 따라 소와 돼지 사육 농가들은 판로가 막혀 가축을 대량 살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변호선 기자 hsbu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응원에서 지원까지 하나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의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튼튼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DLF·라임 왜 못 막았나”... 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이달 금감원 본감사 유력

감사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 주 감사관을 파견해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이달 말까지 본 감사 관련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은 감사원의 연례 감사와 시민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등 두 건의 감사를 앞두고 있어, 감사 진행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윤석현 금감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윤 원장은 다음달 8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금감원장 교체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만약 이번 본 감사에서 금감원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지지부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윤 원장이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감사원, 금감원 현장조사 재개... 이달

관리·감독 능력 '도마위'

사건 무마·내부정보 누설 등 전 금감원 팀장 라임사태 연루 관련 부서 내부감사 가능성 커

윤석현 원장 거취 분수령

불완전판매·횡령·배임 혐의 등 대형 금융사고 전 상황 파악 정확 관리 부실 책임 사퇴 가능성도

본 감사 유력 = 감사원은 코로나19로 두 달간 중단했던 출장업무를 재개하면서 지난 주 금감원에 현장 조사 직원을 파견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은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의 배경으로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능력이 언급되면서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2월 달에 감사 직원들이 본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나갔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부 철수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2월 말에 마무리 짓지 못한 현장 조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아직 본 감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보통 본 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계획

일정	5월 둘째 주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5월 말 본감사 계획 수립 및 착수
감사명	금융당국 대상 연례 감사 및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감사내용	- DLF·라임사태 발생 경위 및 불완전판매 여부 - 금감원의 금융회사 관리·감독 적정 여부	



사원 내부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 감사와 관련된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본 감사에 들어간다면 이달 내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만 2건의 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 감사에 들어갈 경우 감사 과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감사원 연례 감사계획에 금융당국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DLF파해지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함을 인지했음에도 부실한 감독으로 DLF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임사태에 금감원 전 팀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부서의 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도 이뤄

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보통 감사원 본감사가 시작되면 감사원에서 직원 10명 정도가 파견되기 때문에 미리 사무실을 마련해 두는데, 아직까지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현 원장 취임 2주년 앞두고 교체설 무성 = 최근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김 전 차관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 예측이 나오고 있다. 취임 2년 차를 앞둔 윤 원장은 아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임기 동안 DLF사태, 라임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DLF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 리 쇼프 등 사전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한 상황이었으며,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만 강도 높은 제재와 검사를 받고,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된 감사원 감사는 관리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윤 원장에게 치명적이라 분석이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쓰면서 정부의 금융 정책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듯 보였지만 막상 금융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키웠고, 피해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윤 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오수 전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금감원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교체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금감원 내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됐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수은-신한은행, 수출 활성화 '맞손' 방문규(왼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6일 대외거래 금융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은성수 “은행, 기간산업 지원 동참하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첫 회의

“경제 방역은 현재 진행형 저신용자 소외 없도록 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중소·중견 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중양대책본부(경제 중대반) 금융리스크 대응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됐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기간의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통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시적 어려움에 놓인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조성에는 특히 산업은행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산은과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지

는데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울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달 29일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했다. 은 위원장은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는 연 3~4%의 시장금리 수준으로, 1차(연 1.5%) 때보다 높아졌다. 대출 접수창구는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으로 일원화했다.

그는 끝으로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고용 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 지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jinsan@

신한생명, 업계 첫 건강 나이로 보험료 적용

신한생명은 고객의 건강평가 분석 정보를 통해 건강 나이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을 생보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은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크래핑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나이를 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고객이 건강할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40세 남성이 보험가입 이후 건강 나이가 38세로 산정됐다면 신청 시점 이후부터는 38세 기준 보험료로 납입하고 신청 시점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차액



만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특약이 부가된 대상 상품은 ‘진심을품은 중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가입 고객 중 피보험자 보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1년 이내 검진 결과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건강 나이는 실제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 건강관리 동기 부여를 위해 가입 후 10년 이내 3회까지 건강 나이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카뱅, 1분기 만에... 작년 순익 넘었다

순익 1년새 181% 늘어 ‘185억’

카카오뱅크가 1분기 185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1.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순이익이 137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달성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작년 한 해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자산이 성장해 이자수익이 늘어난 데다 수수료 부분의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이자수익은 844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4.9% 증가했다. 수수료 손실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48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 31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제휴사 대출 추천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올해 2월 NH투자증권 주식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수수료 부분의 개선세가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카카오펙으로 신청된 전체 주식계좌는 65만 개다. 카카오펙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제후 신용카드를 출시했다”며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총자산은 3월 말 현재 23조 4000억 원으로 수신액은 21조 3000억 원, 여신액은 16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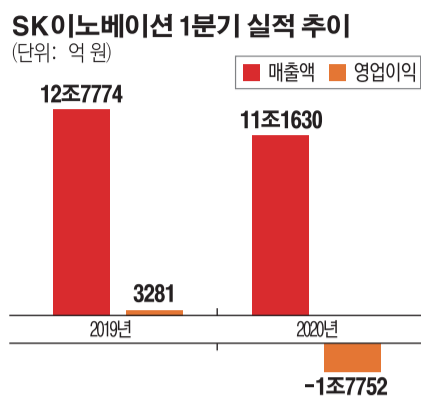
SK이노, 1분기 1조7800억 적자...예상치 두 배 '쇼크'

“창사 이후 최악 경영환경”
코로나 충격에 정제마진 약세
유가 급락·환차손까지 4중고
배터리사업은 적자 소폭 개선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1조7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컨센서스였던 8000억 원대 손실을 크게 웃도는 ‘어닝 쇼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조1630억 원으로 12.6% 줄었다.

지난해부터 악화한 시장 상황에 유가 급락으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한 여파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국내외 석유제품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정제마진 약세도 영향을 끼쳤다.

회사 관계자는 “환차손까지 더하면 4중고에 직면한 최악의 시기에 나온 영업실적”이라며 “이는 1962년 회사가 정유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악의 경영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화학사업에서는 전 분기보다 제품 마진이 개선됐지만 납사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 영향으로 2015년 4분기 이후 첫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운환유사업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원가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 영향으로 289억 원을, 석유개발사업 영업이익은 페루 88·56 광구 운영 비용과 미국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줄며 453억 원을 거뒀다.

배터리사업은 작년 말 완공한 중국과 헝가리 생산공장을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가동하며 초기 가동비가 발생했지만,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적자가 75억 원 개선됐다. 소재사업은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 판매가 늘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36억 원 늘어난 270억 원을 거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2020년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열어 배터리 부문 올해 실적 목표와 관련해 “지난해 4분기 제시한 매출액 예상 전망치를 2조 원으로 제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문자상표 부차 생산(OEM) 물량 조정이 있었다”며 “올해 매출 목표치를 10% 정도 줄였다”고 밝혔다. 다만, “수율 개선과 비용 최적화 등을 통해 (미국 등지에) 건설 중인 공장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일 것”이라며 “손익에서는 기존 목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전문가 그룹과 차세대 배터리 후보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 중”이라면서도 “(차세대 배터리)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석유제품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시장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트유, 가솔린 가격 및 수요는 2분기까지 약세가 심화하다 코로나 종식 시점 예상인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콤플렉스(CLX)에서는 원유정제시설(CDU)을 감량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분기에는 정비설비를 통해 1분기보다 15만 b/d를 감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과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추가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 중이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LG 벨벳 측면 모습. 디스플레이 좌우 표면을 완만하게 휘어 최적의 그림감을 만들어냈다.

“한 곳 차 살려...그립감 최고” ‘LG 벨벳’ 디자이너의 자신감

“7.8mm 두께로 손에 착 감겨”
SNS서 디자인 뒷얘기 공개

LG전자의 디자이너들이 매스프리미엄 스마트폰 ‘LG 벨벳’에 적용된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등을 직접 소개하며,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전자는 6일 자사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에 LG 벨벳 디자이너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LG 벨벳의 디자인을 탄생시킨 LG전자 MCD디자인연구소 김영호 전문위원과 유승훈 책임연구원이 등장해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독특하고 개성 있는 컬러 등 LG 벨벳의 디자인을 소개했다.

김영호 전문위원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한 곳 차’로, LG 벨벳을 완성시킨 디자인의 ‘한 곳’이 ‘벨벳 터치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 벨벳은 손으로 쥐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감을 준다”며 “후면 글라스의 좌우를 완만하게 휘어서 최적의 그림감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LG 벨벳의 4가지 색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에 대한 질문에 ‘일루전 선셋(Illusion Sunset)’이라고 답하며 “파란 하늘에서 석양으로 물드는 순간의 색인 핑크를 베이스로,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상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LG전자 MCD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유승훈 책임연구원은 “6.8형의 대화면을 사용하면서도 슬림한 느낌을 주기 위해 20.5:9 화면비를 적용했고, 여기에 7.8mm의 얇은 두께로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벨벳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인 물방울 카메라에 대해 “후면 카메라를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배치하면서 심미성을 높였다”며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후면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 개발팀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벨벳은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등의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다. ‘물방울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디자인이다. 여기에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했다.

LG전자는 15일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LG 벨벳’을 국내 출시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정유 프로젝트 추가 수주

6000만 달러 규모 ‘파일’ 공사

삼성엔지니어링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파일(Pile)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파일 공사는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지반에 파일을 박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고중량 플랜트 유닛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은 설계가 완료된 일부 플랜트 유닛에 대한 파일 작업으로 1만5000개의 파일 중 약 4500개에 대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8개월, 계약금액은 약 6000만 달러(약 700억

원)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누적 계약금액도 3억1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멕시코 동부 타바스코주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로부터 수주했으며, 삼성은 총 6개 패키지 중 2번 패키지(디젤 수첨 탈황설비 등 4개 유닛)와 3번 패키지(중질유 촉매분해공정 설비) 1단계를 수행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올컨두잇! 올원뱅크!

금융부터 다양한 생활 혜택까지!
올원뱅크의 무한능력을 만나볼까요?

- 하나. 무료할 때 VOD, 웹툰, 웹드라마를 무료로 즐긴다
- 둘.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금융을 손쉽게 해결한다
- 셋. 원하는 환율일 때 환전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 넷. 생활 속 유용한 상품을 최대 90% 핫딜로 구매한다

무한능력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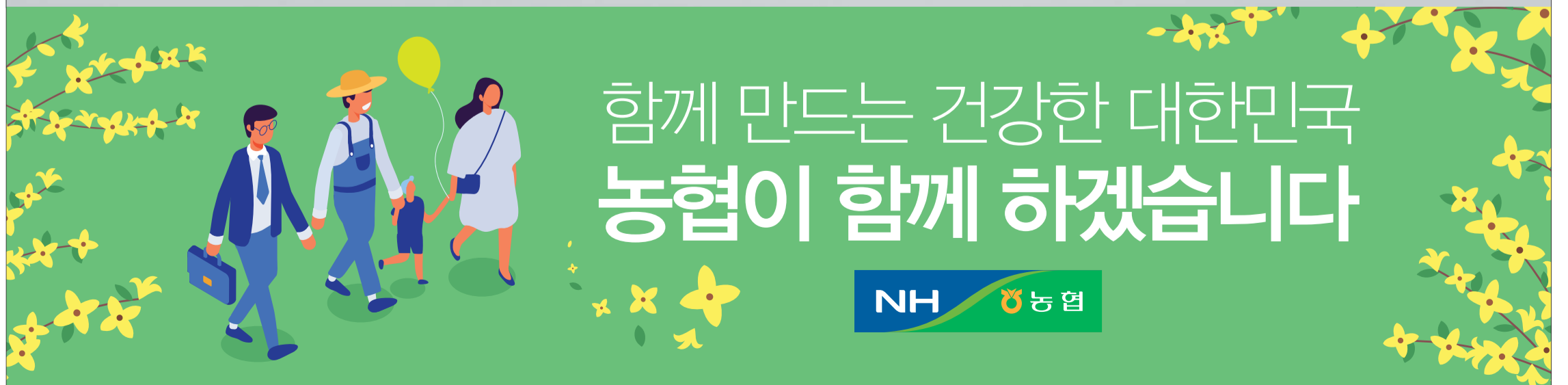
QR코드로 간편하게 올원뱅크를 검색해보세요

*무료 코인 제공으로 웹툰 감상 가능 *추첨을 통해 핫딜 상품 구매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1818(2020.04.28~2022.04.25) *서비스 관리 부서: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센터Cell

NH농협은행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NH **농협**



중기중앙회 “재난지원금 기부, 코로나 극복 힘 보태겠다”

김기문 회장 “정부·국민 지원에
이제 중소기업이 화답할 차례”
고용불안 해소·일자리 안정 지원
11~15일 전국서 中企주간행사



중기중앙회 김기문(왼쪽) 회장과 한병준 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운동’ 협약식에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조정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운동’에 동참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2회 중소기업주간’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있었고 이제는 중소기업이 화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 위해 그동안 기업 유동성 보완과 고용안정에 많은 재정이 소요됐고,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회장단과 이사, 지역회장단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은 고용보완금에 적립돼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쁜 기업을 시작으로 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이 진행된다.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다. 슬로건은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 및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40여 개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개최된다.

첫 행사는 11일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이다. 지난해 12월 당·정·장이 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른 세부 실행 방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상승 랠리’ 다시 올까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1~12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상승장 시작이란 과거의 법칙이 재현된다는 예측과 전례 없던 불황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6일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비트코인 시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5일 뒤인 11일로 예정돼 있다. 반감기는 약 4년마다 돌아오는데, 이번 반감기엔 신규 발행량이 10분당 12.5BTC에서 6.25BTC로 감소한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012년 11월 28일과 2016년 7월 9일 등 총 두 번의 반감기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탄생 첫 4년간 10분마다 발행된 새로운 비트코인은 50BTC에

12.35달러에서 150일 지나 127달러로 10배 상승했고, 2016년 반감일엔 650.63달러에서 150일 뒤 758.81달러로 상승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브라이언 켈리 BK캐피털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는 “총 공급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는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 등 일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금보다 훨씬 큰 희소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반감기 기대감으로 상승해, 반감일 이후 추가 상승세가 없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뉴욕 증시 폭락이 발생한 ‘검은 목요일’(4월 12일) 이전인 9000달러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다. 이번 회복장에 반감기 호재가 벌써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반감기 이후 단계적으로 30% 가까이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이자 대표적 급투자 호르몬자라는 유명한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서 “많은 이가 반감기를 최고 호재로 인식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미 합의’에 도달한 이벤트”라고 꼬집었다.



**11~12일 세 번째 반감기
신규 발행량 절반으로 감소
희소성 증가 상승장 기대**

“예상된 호재, 이미 시장 반영
실망매물 늘어날 것” 주장도

김우람 기자 hura@

한컴그룹, 김연수 부사장 선임… 2세 승계 ‘속도’

그룹운영실장 맡아… ‘한컴위드’ 지분 9.07%로 1년 새 두 배 늘어

한글과컴퓨터그룹의 2세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일 한글과컴퓨터그룹은 김연수(사진) 전략기획실장을 그룹운영실장 부사장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김상철 회장의 장녀로,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보스턴 칼리지 대학원에서 금융학 석사와 맨스칼리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2006년 반도체 제조기업 위지트 입사를 시작으로 해외사업, 투자기획 등의 업무를 통해 기획 및 M&A 실무를 익혀왔다. 특히 김 회장과 함께 국내 최초로 나스닥 SPAC을 운영하며 해외투자업무를 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그룹사 간 시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컴그룹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김 부사장은 2019년 말 기준 한컴위드의 지분 9.07%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4.08%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컴위드는 한글과컴퓨터의 최대주주다. 반면 김 회장의 한컴위드 지분은 2018년 20.25%에서 지난해 15.77%로 줄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우주날씨 비밀 풀 ‘나노위성’에 국민 이름 새긴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자 접수
세계 첫 나노위성 편대비행 도전

우리나라가 개발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나노위성에 국민들의 이름을 새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연에서 개발 중인 나노위성 ‘도요셋(영어명 SNIPE·사진)’에 신청자의 이름을 새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요셋은 중량 10kg 이하 소형 위성인 나노위성 4기로 구성되며, 2021년 6월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 후 고도 500km 궤도에서 우주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천문연은 천문학 및 우주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도요셋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

희망자는 천문연 홈페이지 도요셋 배너에 다음 달 20일까지 이름과 이메일, 지역, 응원 메시지를 입력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이름을 위성 표면에 레이저로 새긴다. 또한 응원 메시지는 SD카드에 저장해 위성에 실을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11일 발표한다.

우주날씨는 지구 주변 우주환경의 변화와 태양풍에 의한 우주폭풍으로 대표되는

데, 우주 날씨의 변화는 위성통신 교란은 물론 GPS 오차 증가, 전력망 손상 등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주 날씨의 태양풍 입자와 지구 자기장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요셋은 이를 밝히기 위해 발사 후 1년간 지구 북극과 남극 위를 통과하는 극궤도를 공전하며 과학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요셋은 나노급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비행에 도전한다. 동일한 과학임무 관측기가 탑재된 4기의 나노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각 위성 간 거리를 조정하며, 위성에 탑재된 소형 추력기를 이용해 4기 위성이 일렬로 비행하는 중대 비행과 나란히 비행하는 횡대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 ‘놀이의 발견’ 분사

초대 대표에 윤세봄 전무
“2년 내 300만 회원 목표”



웅진씽크빅이 키즈플랫폼 ‘놀이의 발견’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웅진씽크빅은 ‘놀이의 발견’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놀이의 발견’은 전국의 다양한 놀이, 체험학습, 창작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전시회나 키즈카페, 테마파크 등을 고객들과 연결해 알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다.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회원 46만 명을 확보했고, 누적 거래액 80억 원, 제휴사는 5000여 곳이다.

지난해에는 구글플레이 선정 ‘올해를 빛낸 앱’에 선정됐고, ‘출산·육아’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분할로

‘놀이의 발견’은 웅진씽크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놀이의 발견 초대 대표이사에는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윤세봄(사진) 웅진그룹 사업운영총괄 전무가 선임됐다.

윤 대표이사는 “앞으로 1년 안에 100만, 2년 안에 300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개념 육아 서비스 등 새로운 시너지 상품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전략적 제휴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성장성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래미안슈르’ 전용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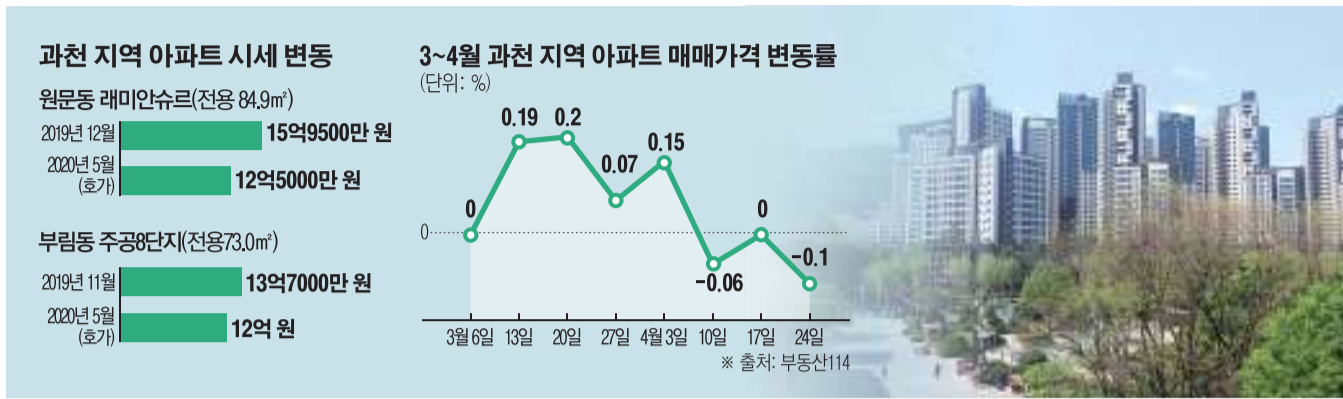
과천 ‘대장 아파트’도 3억 떨어졌다

과천 매매가 지난달 0.01% ‘뚝’
규제에 코로나 덮쳐 불안감 증폭
급매물 쏟아지며 집값 폭락 확산
수도권 전역으로 하락세 퍼질 듯

웬만한 서울지역 집값을 웃돌았던 경기 과천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과천을 거쳐 수도권으로 퍼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경기지역에서 3월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은 과천과 파주(-0.03%), 위례신도시(-0.02%), 김포한강신도시(-0.01%) 네 곳이다.

과천 집값 동요는 지역 ‘대장 아파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형은 최근 호가가 12억 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시세가 15억 4500만 원까지 올랐던 올 2월과 비교하면 3억 원 가까이 낮다. 옛 과천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슈르는 재건축 선두주자



인 데다 서울을 오가기 좋은 입지 덕에 과천에서 ‘대장 아파트’로 군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림동 과천주공8단지 전용 73.0㎡형도 최근 12억 원 언저리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 주공9단지과 공동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까지 채웠지만 가격은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 아파트는 13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천은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하반

기엔 아파트값 상승률(14.5%)이 수도권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쾌적한 주거 여건과 재건축 가속화, 서울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부동산 규제외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기점으로 전방위 규제를 펼치면서 과천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모두 흔들리고 있다.

공급 측면에선 세금 부담과 시장 악화가 걸림돌이다. 별양동 H공인 관계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친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물건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이 내놓는 급매

물이 전체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가 끝날 때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부진은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 키우고 있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천은 경기권이면서도 강남만큼 집값이 높고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특수한 지역”이라며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과천에서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도 위축하고 있다. 별양동 A공인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말라가고 있다”며 “전부 규제에 들어가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질이 있어야 가격이 하향안정화될 텐데 지금은 거래가 아예 끊겨버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과천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496건 중 매매가격이 9억 원 아래인 거래는 32건뿐이다. 나머지는 현행 대출 규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종교 집단 ‘신천지’가 과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발길은 더욱 줄었다. A공인 관계자는 “신천지란 말이 나오면 손님들이 고개를 끄는 것”이라며 “코로나 얘기가 들리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윤 연구원은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강북권으로 번지고 있듯 과천 집값 하락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한동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거주자, 지방 아파트 1.6만 가구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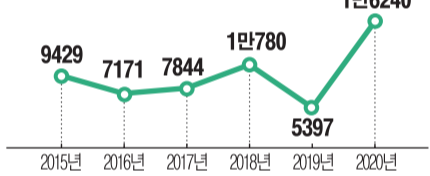
1분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
지방 거주자, 서울 7011가구 매입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이 사들인 다른 지역 아파트가 1만 6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타 지역 아파트는 1만 6240가구다.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서울 투자자들의 발길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매입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도로 1만 1637가구가 서울 거주자에게 팔렸다. 지난해 1분기(3142가구)와 비교하면 세 배 넘게 늘었다. 서울 원정 투자자들은 인천에서도 1658가구를 사들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서울발(發) 원정 부동산 투자자가 1만 3295건 이뤄졌다. 비(非)수도권에선 강원(1116가구)과 부

1분기 서울 거주자 타 지역 아파트 매입 거래량
※ 출처: 한국감정원, 경제안련



산(704가구), 충북(636가구) 순으로 원정 투자가 활발했다. 시·군별로는 인천 서구(2147)에서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았다. 경기 용인시(1702가구), 남양주시(1590가구), 고양시(1440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부동산 원정 매입도 늘었다. 올 1분기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7011가구로 지난해 1분기 조사 때(1104가구)보다 6배 넘게 늘었다. 특히 노원구(858가구)에서 외지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박종화 기자 pbell@

롯데건설, 베트남 하노이 3500억 호텔 공사 수주

스카이 브리지 적용 6성급

롯데건설은 지난달 2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서호 인근 스타레이크 신도시 부지에 6성급 호텔을 조성하는 ‘SND 스타레이크 프로젝트’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건물은 지상 최고 40층, 최고 높이 164m로 6성급 호텔(333실)과 서비스드 레지던스(317실), 오피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주 금액은 약 3500억 원에 달한다. 공사 기간은 올해 10월 착공해 약

40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건물 2개 동 상부엔 인피니티 풀을 갖춘 6개 층 규모의 스카이 브리지가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투티엔 지구에서 대형 복합상업시설 개발 사업인 ‘롯데몰 하노이’ 프로젝트와 ‘롯데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 중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GS건설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상용화 연구

3년간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GS건설이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GS건설은 6일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친환경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혁신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국책 연구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하수재이용 플랜트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혁신 기술이다. 연구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COVER STORY 바이러스의 진실

- PART1. 코로나19로 붉든 붉어 드리고 싶은 말
-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 PART4. 바이러스 워치, 면역력이 답이다
- PART5.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신라왕과 만난 사랑

고수열전 삶을 통해 긍정 못할 게 없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동대마을의 추억 앨범 '논골당길'

시니어 반상

생생 부동산 현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저층빌딩 고품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품종이 붐비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8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다시 문 연 서울 문화시설 “예약하고 가세요”

간이회생절차 적용 中 小 부채한도 50억으로 확대

‘생활방역 전환’ 박물관·미술관 등 개방... 정원 절반만 받아

서울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산하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시설 정원의 50%만 개방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감염병 전개 양상, 시설별 이용자 현황,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공공 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고 관람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에서 100명 이하로 입장을 허용하며 대면 설명을 지양하고 애플리케이션, 리플릿 등을 제공해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서울도서관은 이날부터 온라인 예약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26일부터는 자료실을 개방해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재개한

다. 방문자의 도서 열람은 다음 달부터 허용되 총 좌석의 50%로 제한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문화회관과 남산예술센터, 돈의문 박물관 등 공연장은 총 좌석의 30%로 제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목동 빙상장은 이날 문을 열었으며 잠실수영장은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시설은 학교 개학에 맞춰 20일 이후 개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만 2세 미만 영아들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육수요,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개원 시기를 결정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시간을 축소하되 지역 민관의료기관과 협력해 야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민간 역학조사관들을 확진자 감소 추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을 강화해 비상시 서울시 즉각 대응반으로 급파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서정협 부시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상 속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사회·취약계층 방역 등 3대 영역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법무부가 소액 영업소득자(중소기업)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짧다.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180일이면 마무리된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20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수준이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 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檢, 박사방 공범 ‘부파’ 강훈 구속기소

영상 제작·유포 전 과정 개입 혐의 윤장현 전 시장에 ‘판사 행세’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파’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장(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몰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지난해 9월에 조 씨와 공모,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11월에는 피해자 B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같은해 11~12월에는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각각 판사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00만 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했다.

강 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합계 약 264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또한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씨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한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가 있다.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조 씨와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시원한 물놀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아울렛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라임 몸통’ 김봉현 55억 압수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아 수사한 경찰이 김 회장이 숨긴 55억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해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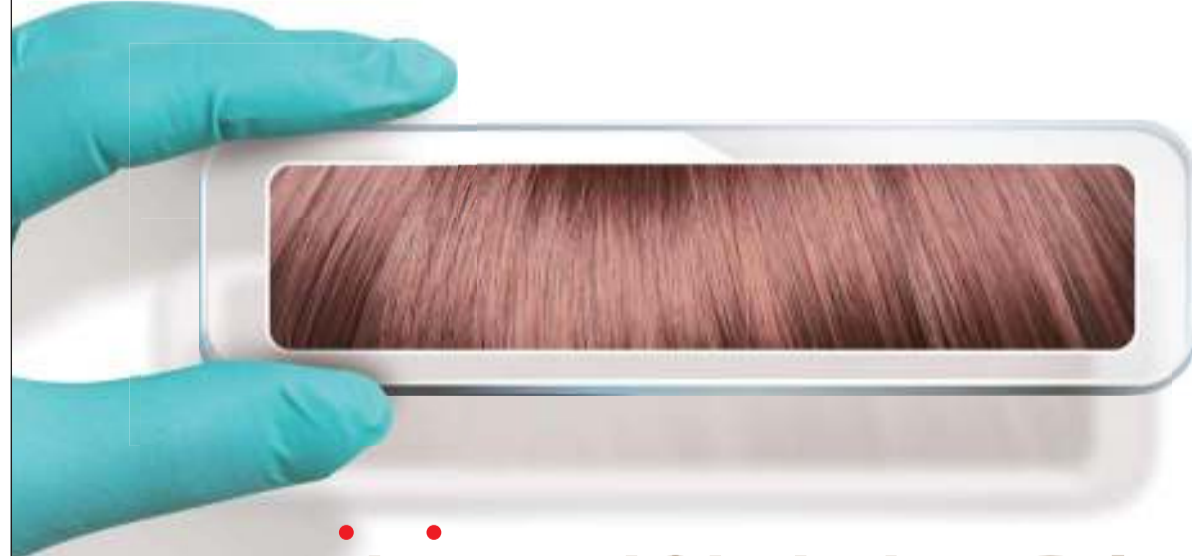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한 현금 총 60억3000만 원을 같이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회장을 체포할 당시 현금 5억30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궁해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에서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여행용 가방 3개를 발견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집에서 하는 전문 헤어 클리닉”



탈모증상완화에 도움!

현대약품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미녹솔S 3종세트

현대약품의 국민탈모약 마이녹솔에 감탄한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탄생했습니다. 탈모증상을 완화하고 모발을 케어하는 현대약품 미녹솔S 집에서 쉽게 간편하게 탈모관리하세요.

미녹솔S 스케일러 (두피 스케일링 및 각질케어)

자연유래추출물로 두피를 상쾌하고 청결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쿠파펩타이드, 호두껍질, 마유오일, 베타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미녹솔S 샴푸 (두피영양 및 모발케어 /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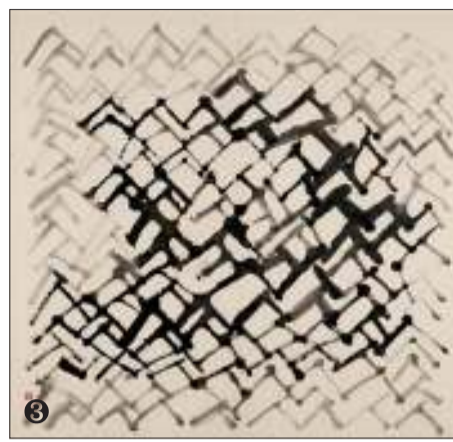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 4종 : 바이오틴, 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
자연유래 성분 : 콜라겐, 비타민C,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맥주효모추출물, 여성초추출물, 녹차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쿠파펩타이드

스칼프 헤어토닉 (두피 및 모발영양)

집중 영양 공급으로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쿠파펩타이드, 붓꽃추출물, 맥아추출물, 멘톨



“글씨와 그림, 뿌리가 같아”... 서예, 미술이 되다



①김환기, 향아리와 시, 1954,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②안상수, 문자도, 2019, 캔버스에 실크프린트, 개인 소장. ③서세옥, 사람들, 1988, 종이에 먹,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번엔 어디 갈래?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畫 畫中有詩)’,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동양의 보편적 예술관이다. 시서화(詩書畫)는 시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시’요, 이는 곧 ‘화’임을 뜻한다.

일본화풍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미술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팽배하던 시기, 해방 이전 유행했던 면(面)적이고 섬세한 채색화풍은 간결하고 필선의 리듬감을 살린 수묵 선묘(線描)로 대체된다. 점차 서예적 필선은 그림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시가 그림과 결합되는 형식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해 1950년대 이후 수많은 시화전(詩畫展)이 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광복 이후 화가들은 ‘글씨와 그림은 뿌리가 같다’는 ‘서화동원(書畵同源)’과 ‘시화일률(詩畵一律)’의 개념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승한다. 소전 손재형은 “우리 미술문화를 바로잡고 서예문화를 새롭게 전개하자”며 ‘서예’라는 요어를 만들고, 중국의 ‘서법’, 일본의 ‘서도’와의 차별화를 꾀한다.

‘미술관에 서: 한국 근현대 서예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첫 서예 기획전 ‘미술관에 서’ 서예적 필선, 그림 핵심요소로... 광복 후 시화전 성행 최근엔 캘리그래피·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인과 접목

국립현대미술관이 1969년 개관한 이후 처음 마련한 서예기획전이다. ‘한국 현대 서예가 1세대’ ‘국전 1세대’로 불리는 12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주목을 받는 캘리그래피와 타이포그래피, 영상 캘리그래피 등으로 서예의 확장 가능성까지 엿본다.

김환기의 ‘향아리와 시’ (1954)가 눈에 띈다. 작품은 그림일기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를 빌린다.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인 그는 터무니없는 것을 표현하기보다 소재, 표현의 추상화에 집중했다. 문인화의 시서화 일치 사상을 ‘수묵’이 아닌 ‘유채’를 통해 표현했고, 제발을 한글로 씌으로써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려 했다. 기하학적 도형 위로 하얀 매화가 만개하는데, 서정주의 시가 어우러져 화면에 운치를 더한다.

황창배의 ‘무제’는 또 다르다. 화면의 절반에 적힌 금빛 숫자들은 낙서처럼 보이지만 작가의 의도성이 다분한 획들이다. 전시를 기획한 배원정 학예연구사는

“황창배는 시도에 주저함이 없었던 작가”라며 “자기 부정과 자기 해체 등을 통해 시서화 해체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응노와 남관은 1960년대 이후 서체를 추상회화의 요소로 활용하는 서양 제작 방식을 수용해 ‘문자추상’을 완성했다. 특히 이응노는 먹으로 그릴 때뿐만 아니라 폴라주로 문자추상을 제작할 때도 서예를 쓰듯 리듬감을 살렸다. ‘주역’ 64괘 문자의 획이 인간의 형상으로 되살아난다.

2층 두 번째 전시장의 부제는 ‘글씨가 그 사람이다’다. ‘국전 1세대’ 대표작가 12명의 연결고리를 찾아봐도 좋다. 소전 손재형은 해방 이후 ‘서예’라는 명칭을 정착시키고 자신만의 한글 서체인 ‘소전체’를 개발했다. 그는 추사의 걸작 ‘세한도’를 일본인에게서 인도받아 귀국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여초 김응현은 소전체를 비판하며 1775자의 광개토태왕 비문의 글씨를 5m 높이로 써냈지만, 여초

의 형인 김충현은 소전과 제1회 국전을 기획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체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중국인들은 김충현의 서체를 보며 ‘시각의 안정성’이 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세 번째 전시장은 ‘전통의 계승과 재해석’ ‘서예의 창신과 파격’ ‘한글서예의 예술화’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전문가 15인이 선정한 ‘2세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모아 놓았다. 하나의 대상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화면 밖으로 치고 나가는 정도가 어떠한지 해석 박원규, 포현 황석봉 등을 통해 확인한다.

4부는 서예의 디자인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다.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연결고리가 있다. 음가를 해체한 강병인의 서체에선 한글의 표정이 보인다. 한글은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이라는 이상현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활용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막했다. 3월 30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6일 오전 기준 6만3959회 시청됐다. 국현의 온라인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7월까지 국현 덕수궁관에서 열지만, 국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13세, 우리 아이와 돈 OPK를 사적할 때 박정현 지음/한스 미디어 펴냄/1만 4500원

우리는 여태껏 공부 잘하는 것만이 삶의 모범이라고 교육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자녀 세대가 살아갈 현실은 조금 다르다. 어릴 적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보다는 돈의 성질을 잘 알고 금융에 대한 이해가 밝은 사람이 온갖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12년간 학교 공부만 맹목적으로 해온 아이들은 ‘금융 문맹’으로 성장한 채 허탈감을 느낄지 모른다.

저자는 인생에 꼭 필요한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교실에서 매주 한 시간씩 돈을 주제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법칙, 수식 같은 것은 내려놓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즐겁게 돈 이야기를 풀어갔다. 아이들은 스스로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생각해보며 실질적인 금융 지식과 경제관념을 배워갔다.



문샷 사피 바칼 지음/이 지연역음/흐름출판 펴냄/1만8000원

치료법이 없다고 여겨졌던 질병을 인류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버섯광이자 미생물학자였던 일본인 연구자 엔도 아키라가 곡물 창고에서 발견한 청록색 곰팡이로부터 분리한 약물 덕분에이다.

하지만 엔도 아키라가 발견한 약물은 일본에서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며 외면받았다. 이때 엔도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제약회사 머크는 1987년 최초의 스타틴 계열 약물, 메바코를 출시했다.

물리학자, 바이오테크 기업 창업자인 저자는 ‘쓸모없는 발상’이라고 치부받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육성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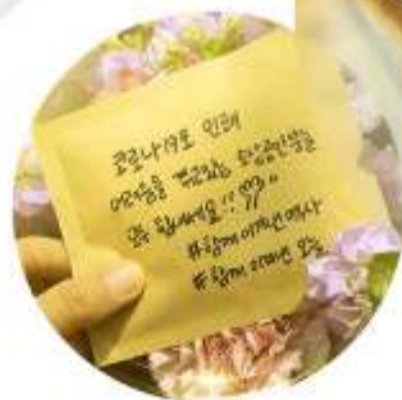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캐너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②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둔 까닭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왕권 전제, 國富를 일구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7차 레나 대(對)프랑스동맹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결국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영국이 프랑스의 앞길을 사사건건 가로 막은 이유는 '강대한 적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막 산업혁명을 일으켜 도자기와 면제품을 대량생산 중인데, 정작 팔 곳이 없다면 고스란히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산업혁명 후 '프랑스 견제' 동맹 주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영국 해군이였다. 영국에서 포르투갈까지 해상 보급선을 유지하고, 군량과 화약 같은 필수 군수물자 공급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프랑스군보다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완벽하게 쳐부셔, 바다의 패권을 장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예전에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인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종대(column) 전술이었다. 역사적으로 범선끼리의 전투 사례를 보면, 배를 일렬로 늘어선 채 배의 옆구리 부분을 서로 마주보며 이뤄지는 횡대(Line) 전술이 일반적이었다. 바람을 동력원으로 삼고 있어 배의 신속한 조작이 쉽지 않았던 데다, 범선 옆면에 수십 문의 대포를 배치해 놓았기에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대포가 실 새 없이 터지는 전투 중에는 아군에게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일렬로 줄지어 서 있는 게 실수로 아군을 공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을 채택하게 만든 유력한 이유였다.

넬슨 제독의 파격적 전법, 종대 전술

그러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은 전통적인 전술을 벗어나 파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일렬로 늘어선 채 대포를 장전하고 있는 적의 진형 가운데를 향해 2열 종대로 돌파를 시도했던 것이다.

넬슨이 혁신적인 전술(종대 전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당시의 전열함은 100여 문의 대포를 보유한 강대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포만으로 상대를 침몰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시 대포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였지만, 상대의 얼굴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준까지 다가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재로 만들어진 상대의 선체를 부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넬슨 제독은 신속하게 적에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상대의 대포 공격으로 받을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넬슨 제독이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온 둘째 이유는 영국 해군이 대단히 잘 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 해군은 기본적으로 깃발신호에 능숙했는데, 트라팔가

해전 당시 넬슨 제독은 "잉글랜드는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England Expects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라는 명 문장을 전체 함대에 전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긴 문장을 신속하게 깃발로 올리는 기함 빅토리(HMS Victory)의 수병도 대단하고, 또 이 깃발을 신속하게 이해하는 각 함선의 장교와 수병도 이미 보통 수준의 숙련을 넘어서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상대의 진형을 향해 뛰어드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명령을 전달하는 일이 가능했고, 또 상대의 진형을 분단시킨 후 차례대로 적 함선을 격파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넬슨 제독의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는 전투에 참여한 33척 중에 1척이 격침당하고 22척이 나포당하는 괴멸적인

시사한다. 넬슨 제독의 최후를 바라보며 노랑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의 명장이순신 장군을 떠올린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체 영국 해군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숙련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명예혁명 전 국채 금리 10%대

여러 이유가 제기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영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포 사격 기준으로 영국 해군은 1분에 한 발을 쏠 수 있었던 데 비해 프랑스 해군은 2분에 한 발이 고작이었는데, 이는 영국 해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배와 대포는 비싼 물건이며, 특히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매년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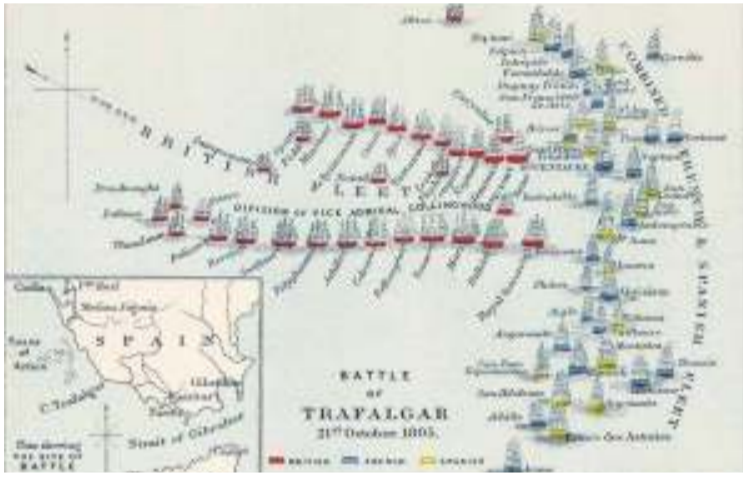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 등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프랑스 등 적대적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국채 금리는 10%를 훌쩍 넘었다. 명예혁명 이전에 금리가 높았던 건 당시 영국 왕실(스튜어트 왕가)이 빈번하게 '채무불이행'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671년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지급을 정지시킨 일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 자산가들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던 런던의 금융업자들은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가 벽난로세(hearth tax) 등 수많은 폭품에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의회를 비롯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시민들은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내쫓았다.

세금 징수 의회 동의, 재산권 보호

영국 의회는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새로운 국왕(윌리엄 3세)으로 앉힌 뒤, 그에게서 새로운 세금을 걷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강탈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다. 그 후 영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왕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권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곧바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에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1690년까지만 해도 10%에 거래되던 영국 국채 금리가 1702년 6%로 떨어졌다. 특히 1755년에는 2.74%를 기록해 어떤 경쟁 국가도 꿈꿀 수 없었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영국군의 전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실제 화약을 이용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AR리서치 대표



트라팔가 해전의 상황도. 붉은 배가 영국군, 파란 배는 프랑스군, 노란 배는 스페인군이다. 영국 해군의 2열로 열을 지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붉은 배 중 앞쪽 선두에 선 배가 바로 넬슨 제독의 기함(HMS Victory)이다.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 당시 입었던 제복.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소재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군도 3238명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넬슨 제독이 전투 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할 정도였다. 넬슨 제독이 총탄에 쓰러진 이유는 그가 2열 종대의 선두에 서서 적 진형에 제일 먼저 뛰어어드는 용기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강대한 적의 중심부로 뛰어들라고 명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국 해군 승리 밑바탕엔 '경제력'

필자는 런던의 그리니치에 있는 해양박물관을 방문했다가,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 당시 입었던 제복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옷의 어깨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배와 배가 충돌하는 격렬한 전투 와중에 마스트에서 쏜 저격병의 총탄에 쓰러졌음을

사설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젠 삼성을 더 뛰게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권 승계와 노조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3월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준법의 무 위반 의혹과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법규 위반 등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고,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삼성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다. 총수가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잘못을 자책하고 사죄했다. 경영권 승계 논란을 해소하고,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영 풍토가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다. 나라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버팀목으로서 삼성이 수출과 투자, 고용, 부가가치 생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삼성의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족쇄도 이젠 풀려야 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가 삼성 등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군 성취를 부정하고, 기업가정신을 쇠락시켰다. 경영권 편법 승계, 정경유착 등의 굴레를 씌운 정치권이 이를 부추겨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곤두박질치는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내수와 수출시장이 동시에 추락하고 주력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한데 모아 투자확대와 신사업·신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삼성이 위기극복의 선두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더 높게 비약하는 삼성을 꿈꾸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 킷



조금만 더...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0명에서 멈춘 가운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생활 시설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현수막 가게에 걸린 문구처럼 조금만 더 참고 견디길 바란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100명이 한 자리에
아니, 한 통화에 모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한 회의실에 모이지 않아도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
100명이 참여하는 회의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까지 T그룹통화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지금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T그룹통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T전화' 앱에서도 30명까지 그룹통화가 가능합니다.